

비트맥스, '한국판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속도...비트코인 추가 매입

등록 2025.03.25 08:32:25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구 맥스트)가 가상자산을 추가 매입한 사실을 밝히며 '한국판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트맥스는 기존 매입액 80억원에 이어 54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회사는 비트코인 38개, 이더리움 232개를 추가 확보하며, 총 보유량은 비트코인 88개, 이더리움 500개로 늘었다.

비트맥스 관계자는 "이번 추가 가상자산 매입으로 총 134억원 규모의 전략적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 및 관리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수탁사인 KODA(한국디지털자산수탁)를 통해 이뤄져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비트맥스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자산화' 트렌드를 적극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최근 1억7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비트코인 130개를 매입했고, 총 보유량은 49만9226개(BTC)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역시 약 1762개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최근 1년간 주가가 4000% 급등하는 등 기업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바 있다.

이외에도 테슬라, 스퀘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해 보유 중이며, 전통 금융사들 역시 가상자산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도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자신이 이끄는 아크인베스트(Ark Invest)를 통해 관련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마이크로스트레티지나 일본 메타플래닛처럼 비트코인을 장기 핵심 자산으로 설정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트럼프 일가의 이더리움 투자 확대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맥스의 추가 비트코인 매입은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전략화 움직임에 있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이 전략이 성과를 거둘 경우,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들이 국내에서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